

티벳 불교미술박물관 9월 개관

티벳 불교미술의 진수를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전문박물관이 9월에 문을 연다.

한빛문화재단(이사장 한광호)이 서울 이태원동에 200여평 규모로 꾸민 화정박물관은 티벳 불교미술의 진수인 탱카는 물론 불경과 불구류 등을 상설 전시한다. 탱카란 티벳 등 밀교를 신앙하는 나라에서 밀교의 교리에 따라 여러 가지 채색으로 천에 그림을 그려 사원과 법당을 장식하는 걸개그림으로 우리나라의 탱화에 해당된다. 불보살도와 만다라도등을 포함하는 불교회화의 총칭인 셈.

한빛문화재단은 한광호 이사장이 지난 40여년간 수집한 티벳 불교미술품을 비롯 동남아 각국에서 수집한 불교관련 고미술품 수천점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세계 각국의 고미술품을 상당량 소장하고 있어 박물관이 개관되면 주제별 기획 전시도 할 계획이다.

9월 중순 화정박물관의 개관을 기념하기위해 '티벳의 불교미술'을 주제로하는 개관전시회도 갖는다. 이 전시에서는 불화 50여점과 불경 불상

한빛문화재단, 서울 이태원에 탱카·불경·불구류 상설전시 최근 '탕카의 예술' 제2권 출간



한광호 이사장

불구류 등 150여 점을 엄선해 선보인다. 한빛문화재단 한광호 이사장은 "40여년전부터 불교 고미술품에 관심을 갖고 수집을 시작했다. 그러던 중 일본의 고대사학자 에가미 나미오(江上波夫) 박사의 권유로 티벳 불교미술품을 중점적으로 수집했다"고 밝혔다. 한 이사장은 "수천 점의 미술품을 수집하고 보니 혼자 감상한다는 것이 한국의 불자들에게 미안해 박물관을 열기로 결심했다"며 "티벳을 포함한 동남아 각국의 불교미술을 두루 감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 계

획"이라고 말했다. 화정박물관의 개관은 티벳 탱카를 국내에서 광범위하게 감상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탱카는 중국 명 청대의 불화와 함께 우리나라 불화를 연구하는 데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학계의 관심도 적지 않다.

한빛문화재단은 지난해 '탕카의 예술' 제1권을 간행한데 이어 최근 제2권을 출간했다. 제2권은 탱카예술을 형식별로 이해할 수 있도록 편집했으며 만다라, 여래도, 보살도, 나한도 등100여 점의 탱카를 소개하고 있다. 수록된 탱카의 선정과 해설은 한빛문화재단의 학술고문인 일본의 티벳 불교 전문연구가 타나카 키미야케(田中公明) 박사 가 맡았다.

임연태·김종근 기자(ylim@buddhapia.com)



탕카의 예술' 제 2권에 소개된 탱카. 9월에 문을 여는 화정박물관은 동남아 불교 관련 고미술품도 수천점 소장하고 있다.

문화 단신

선암스님 연꽃사진전

연꽃 사진을 찍어 온 선암스님의 사진전이 23일부터 29일까지 부산 롯데백화점 갤러리에서 열린다.

'연꽃의 4계'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스님은 연꽃이 피기전부터 스러지기까지의 전과정과 한겨울 연밭의 정취를 담은 작품 50여 점을 선보인다.

백현순씨 선우 발표

'무아'와 '공'의 세계를 춤으로 형상화 시켜 온 백현순(동국대강사)씨가 '뭉-나를 보다'란 주제의 선무를 선보인다.

9일(오후7시30분)과 10일(오후6시) 이틀간 신촌 포스트극장에서 공연되는 백씨의 작품은 자신의 진면목을 보기 위한 구도자의 고뇌와 깨침으로 얻어지는 최열들을 묘사하게 된다. 이번 작품은 김응기교수(동국대국악과)가 연출했으며 이기항교수(한성대의류직물학과)가 의상을 맡았다.

동국기획 '명무명인전'

김천홍, 이생강, 이재주, 임이조, 이춘희씨 등 불자 국악인들의 농익은 예기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무대가 마련된다.

동국예술기획이 17번째 기획한 '명무명인전'. 4월 13일과 14일 오후7시 30분 호암아트홀에서 열리는 이 명인전에는 각 분야에서 대가를 이룬 명인들이 대거 참여한다. 정상급 출연진이 선사할 프로그램도 궁중무용에서 민요까지 다양하다. 승무, 태평무 등 대표적 춤사위와 민요 산조등 기악이 어우러지게 되는 이번 무대에서는 궁중무용의 최고령 춤꾼인 김천홍(91세)의 '춘앵전'이 볼 만한 프로로 꼽히고 있다.

봉축 순회사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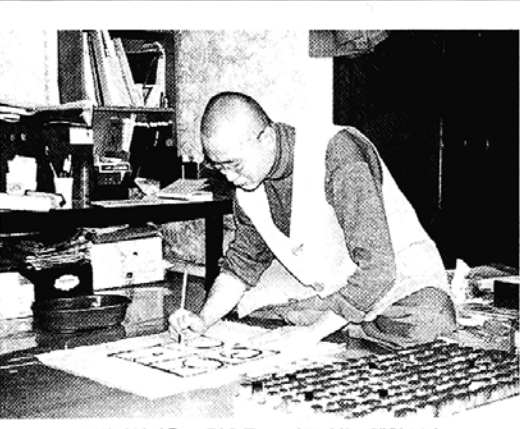
한국불교사건연합회(회장 이병운)가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순회전시회를 갖는다.

전시회는 4월 30일부터 6일간 부천 문예전시관에서 첫 태일을 끊고 서울(5월15~22일) 광주(5월29~6월6일) 등지에서 열린다.

김주성교수 첫 서예전

새로운 한글서체를 개발한 김주성교수(한국교원대 사회교육과)가 첫 전시회를 갖는다.

1일부터 7일까지의 일정으로 인사동 백악에원에서 선보이고 있는 김교수의 서예전은 한글서체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한글을김체'라 이름 지어진 김교수의 서예작품들은 한글로도 자유자재의 서법을 구사할 수 있다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반야심경을 그림으로 그리고 있는 혜천스님.

선화로 읽는 반야심경

혜천스님, 낙관선화로 쏙 해석

초파일쯤 작품집 펴내

반야심경을 그림으로 읽는다. 600개의 낙관과 270장의 선화, 그리고 문구별로 새긴 낙관과 화두를 던지는 듯한 해설. 혜천스님(손모음선원주지)이 반야심경을 그림으로 풀었다. 큰 주제는 '선화로 보는 반야심경'.

'나의 주인공'을 찾아 떠난 한 구도자가 깨달음에 이르고 다시 자신의 참모습을 찾기 위해 부단히 수행하는 과정을 반야심경의 의미에 대비시켜 쓴 것. "글 보다는 그림이 빠르게 와

닿는다는 점에 착안해 그림과 낙관 새기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반야심경을 의미로만 읽기보다는 그림을 통해 더욱 간절하게 되새겨 보자는 겁니다."

무(無), 공(空), 행(行) 심(心) 선(禪) 결국 공도 없고 행함도 없고 마음도 없는 곳이 선의 자리이며 그 선의 자리마저 없는 곳에서 깨달음의 법열을 체득할 수 있다는 것이 혜천 스님의 작업이 주장하는 핵심이다. 수품으로 구성된 이 작품들은 책으로 묶여질 계획이다. 도서출판 밀알이 부처님 오신날을 전후해 혜천스님의 작품을 한 권의 책으로 펴내게 된다. 임연태 기자

禪소설 '선종' 펴낸 이기호씨

"만공스님 이 시대 사신다면..."

13년전 교도소에서 등단했던 소설가 이기호씨. 역사소설이나 폭력의 세계를 다룬 소설집 20여권을 내는 왕성한 활동을 했던 그가 불교에 귀의했다. 신앙적으로 귀의했을 뿐 아니라 경허선사의 대를 이어 근대 한국불교의 큰 선맥을 이룬 만공스님을 환생시키며 귀의했다.



소설 '선종(禪宗)', 만공스님을 환생시켜 놓고 환생한 만공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세간과 출세간의 온갖 행태들을 그려내고 있다.

"감옥에 있는 나를 등단시켜 준 현

재훈 선생님의 한 마디 말씀을 잊을 수 없습니다. 저에게 반드시 불교를 공부해서 불교소설을 쓰라고 하셨는데 그간 자신도 없고 먹고사는 일을 쫓아 다니다 보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불혹의 나이에 이르러서야 선생님의 말씀이 가슴을 파고들어 왔고 소설을 쓰려는 일이 자꾸만 허전해져서 견딜 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만공스님이 이 시대에 살아 오신다면 어떻게?'였고 작업에 매달렸다.

"이번 소설을 쓰면서 행복했습니다. 또다른 작품을 구상하고 써나갈 힘도

생겼고 참다운 불자로 귀의하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그의 두 번째 불교소설 '서경'도 완성단계에 있다. 서장은 요즘도 강원에서 사직과 한 교재로 쓰이는 책으로 중국의 대혜종교 스님이 쓴 선관련 서적이다. 고요한 곳에서의 선 수행보다는 시끄러운 곳에서의 수행을 강조한 이 책의 내용을 이기호씨는 어떻게 소설로 가공했을까. 평탄치 않은 젊은 시절을 보낸 한 작가가 불교에 귀의하며 가슴에 보듬고 들어 온 신작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임연태 기자

EBS '우리문화 세상보기'

최완수씨 강의 '인기'



최완수씨(간송박물관 학예실장)가 EBS-TV '우리문화 세상보기'(담당PD 손복희)를 통해 한국 불상 및 고미술의 유래와 신비로운 예술적 가치 등에 얽힌 의문점을 풀어 주는 TV 강의의 실을 열었다.

이 프로에서는 인도와 중국을 거쳐 한반도로 건너와 꽃을 피운 한국의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에 대해서 조명해 본다. 또 한국 미술사상 회화가 가장 발전했던 조선시대 진경 산수화의 예술적 가치와 함께 우리 민족 문화의 자력도 소개된다.

특히 26일 방송될 '붓 끝에 담긴 혼'에서는 우리 민족의 서체를 추사체 이전과 이후로 나눠 살펴보고 그 안에 담긴 철학과 지혜를 현장감 있는 슬라이드 필름을 통해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준다. 5월 '한국으로 건너온 불상' 편에 이어 △12일 조선의 그림은 말한다 △19일 조선의 회화(진경산수화) △26일 '붓 끝에 담긴 혼' 등의 순으로 방송된다. 저녁7시20분. 김주일 기자(jkim@buddhapia.com)

지도 한장에 경기문화유적

경기도박물관 '유적지도' 비지정문화재도 총망라

지도 한 장으로 경기도의 문화 유적들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박물관(관장 장경호)은 경기도남부 14개 시군지역의 지정·비지정문화재를 총망라해 누구나 쉽게 문화재를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경기문화유적지도-1>를 발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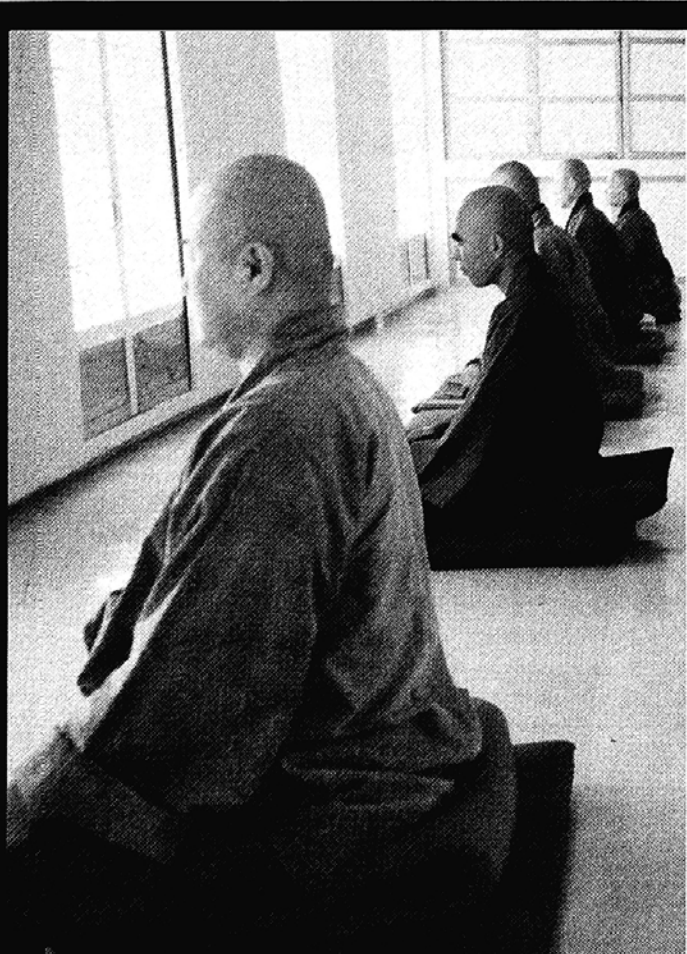
지도제작사인 (주)대한항업과 경기도박물관 학예연구실 조사팀에 의해 제작된 이 지도는 수원·안양·부천·광명·평택·안산·파천·오산·시흥·군포·의왕·용인·안성·화성등 14개 지역의 문화유적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국가·경기도·시군의 지정문화재뿐 아니라 현재까지 알려진 매장문화재를 포함해 모든 비지정문화재를 포괄하고 있으며 현지조사과정에서 새롭게 찾아낸 유적까지도 함께 수록했다.

이를 위해 박물관측은 <문화유적총람>과 각 시·군지, 각종 학술조사보고서등 문헌자료를 참고해 유적의 목록과 현황을 작성했으며, 현장조사의 수정작업을 거쳐 우선 5천분의 1 기본도에 위치를 기록하고 이를 2만5천분의 1 지도로 옮겼다.

경기도는 경기 중부와 북부지역에 대한 문화유적지도도 연차적으로 펴낼 계획.

오종욱 기자 (gobacou@buddhapia.com)



주머니 속 대장경 303-선(禪) 어시어문 "들은 바.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전하겠다"는 정신으로 시대의 빛이 될 책들을 만들겠습니다

한형조 교수의 한글 세대를 위한 선(禪)불교 강의

무문관 혹은 "너는 누구냐"

선(禪)은 논리와 변증을 극도로 싫어한다. 상징과 역설로 비틀다가 성에 안 차면 직접 행동으로 나선다. 코를 비틀고 발등을 찔으며, 몽둥이 세례를 주고 손가락을 자른다.

그 동안 선(禪)을 지나치게 교(敎)의 <혁신>의 측면에서만 바라보았다. 그렇지만 선은 교(敎)의 <연장>이기도 하다. 선의 혁명은 소송에서 대승에 이르는 난만한 교학의 발전 그 정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 점을 놓치면 선의 활발한 거리를 정당하게 읽을 수 없다. 이 글은 선이 <언어를 버리기까지>의 고민과 배경을 살피고, 그 불가해한 언설에 담긴 이론과 맥락을 탐색해 나간다.

선의 문헌은 역설적이기도 방대하기 그지없다. 그 가운데 수행자들의 실지 수련을 위해 간명하게 정리

한 화두(話頭)집인 『무문관(無門關)』을 통해 선의 <역사>와 <이념>, <방법>과 <한계>를 읽는다. 『무문관』은 선의 궁극적인 화두, 즉 "너는 누구냐"라는 실존적 물음에 대한 선의 전형적 접근을 담고 있다.

『무문관』은 엄밀한 의미에서 책이 아니다. 학인들을 위해 독자적으로 제시했던 화두들을 끌어모아 엮은 것일 뿐이다. 그 편집의 체계를 존중하여 강의 또한 한 글이 역사와 사승의 선후를 정리하지 않았고, 또 선의 정신에 입각해 해설 또한 단평과 감상을 주조로 했다. 이런 두서없는(?) 강의에 불편해 할 사람들, 즉

선을 역사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근대근대 정문의 해설을 끼워 넣었다. 이들을 기적으로 나머지 강의를 참고하면 선의 대강을 가늠할 수 있다.

이 글은 <번역>과 <해설> 부분으로 되어 있다. 두 부분 모두 근대교육을 받은 세대들을 위한 온전한 현대어이다. 필자 자신 한문을 외국어로 익힌 한글 세대로서 당연한 선택이고 앞으로도 그래야 한다.

한형조 지음/ 88 변형 334쪽 / 값 6000원